

Sam 솟는 Joy

서문미션센터 사역 시작

경기도 광주에 정착한 작년 11월부터 서문미션센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곳은 서울서문회사에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세운 곳인데 벌써 17년이나 되었습니다. 매주 일 의료, 한글학교, 이미용 서비스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약 3-40여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찾아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고향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샘류 선생은 이 곳에서 방글라데시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통역이 필요한 곳이면 센터 내부든 병원이든 고용노동부든 함께 가서 필요한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아주 일부만 힌두입니다. 특별히 매주일 저녁 그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하게 거부하지만 오해하는 것이 많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오랜 시간 토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이박 선생 근황



아내는 난소 제거 수술 이후 불청객처럼 찾아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고 림프 순환이 어려워 다리와 복부가 잘 붓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건강하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체력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는데 최근 몸무게가 2kg 정도 회복되면서 기본 체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합니다. 12월 검진에서 5개 진료과를 돌며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위암은 곧 5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강함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앞으로 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새로이 시작하는 이주민사역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조이박 선생의 기초 체력이 단단해지며 몸과 마음이 더욱 더 힘을 내도록
3.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알고 돌아오도록